

## 朝鮮의現實과哲學

金斗憲

무릇 現實은 그것이 完全하건 不完全하건 그 發展의 途程에 있어서 어떤 理論的 根據를 基礎的으로 要求한다. 모든 學術의 研究가 現實의 要求를 充滿하기 爲하여 생긴 것은 明論하다. 따라서 모든 文化現象은 언제나 現實에 立脚한다. 그러나 現實 그것이 文化를 產出함은 아닐 것이다. 다만 現實은 거기에 우리가 處하여 있을 동안 우리를 ■■■함에 따라 어찌하면 그것을 超克할 것인가를 우리가 覺醒할 때 비로소 그 意義를 가진 것이다. 우리가 現實을 意識的으로 把握하여 그 發展 乃至 改造의 原理를 賦與하는데 文化는 發生하게 된 것이다. 이 現實에 對하여 賦與할 原理를 探索함은 모든 學術研究의 任務일 것이다. 그리하여 그 가장 根本的인 原理로서의 普遍的 眞理를 探究함은 곧 哲學의 任務인 것이다.

哲學은 理論을 理論으로서 眞理를 眞理로서 取扱하는데 獨特한 對象의 領域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哲學은 現實을 떠난 理想論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잘못 보기 쉬운 可能性을 包含하여있다. 그러나 哲學은 決코 現實을 沒却한 天上의 일이 아니요, 實際를 떠난 觀念의 遊戲도 아니다. 하물며 그것은 閑居의 產物도 아니요, 享樂의 手段도 아니다. 오직 現實의 要求 우에 立脚하여 根本的으로 宇宙觀, 人生觀을 發見하려한다. 이런 意味에 있어서 哲學者는 現實에 對하여 가장 힘센 關心과 洞察 眼을 가지고 잇는 同時에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그 理論的 根據를 穿鑿하여 마지않은 誠意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과연 朝鮮의 現實은 어떤가? 混沌, 貧窮, 沈滯 等の 가장 悲觀의 言句로써 이것에 對答하기를 躊躇치 않는다. 全然 悲觀에 그칠 배가 아■■움은 勿論이다. 그러나 如何間 우리의 十當八九가 그리 認知하리만큼 우리의 現實은 切迫하여 잇음은 事實이다. 이와 같은 窮迫한 現實을 打開하려 함에는 더욱 辛辣한 思索과 根本的 原理를 要求함은 마야흐로 理의 當然한 歸結일 것이다. 그러나 眞理를 沒却한 一切 理論은 無要하다. 우리는 모름즉이 眞理에 對하여 熱誠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억센 民族 乃至 國民은 무

엇보다 가장 眞理를 愛好한다. 眞理를 爲하여야서는 一切의 權勢와 名譽에 屈服하여야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一切의 偏見을 버리고 虛心坦懷히 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떤 思想的 流派에 固執하여야서는 안될 것이며 또한 盲從的일 것이 아니요, 排他的일 것도 아니다. 어디까지든지 批判的 精神으로써 學究와 創造의 길을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